

현대차, 천능투와 파트너십... 中 상용차 시장 재도약

(사천성에너지투자그룹)

사천현대 증자 참여·경쟁력 강화
상용차 전 부문 다각적 협력 추진
2022년까지 5개 차종 개발



현대차 중국사업본부 이병호 부사장, 상용사업담당 한성권 사장, 장제학 주청무대한국 총영사, 현대차 상용사업본부장 이인철 부사장, 실영홍 고문, 사천성 인리 성장, 천능투 왕청 총경리, 사천성 경신위 천신우 주임, 상무청 류신 청장, 자양시 우위 시장(왼쪽부터)이 협약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새로운 합자사와 손을 잡고 중국 상용차 사업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구축한다.

현대차는 3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 사옥에서 중국 상용차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국 사천성 대표 국유기업인 '사천성에너지투자그룹'과 '전략협약협약서'를 체결했다. 현대차는 이번 전략협약협약서 체결을 통해 천능투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 중국 상용차 생산·판매 법인인 사천현대를 중국 대표 상용차 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천능투가 기존 사천현대 합작사인 남준기차의 자본(50%)을 인수하

고, 현대차와 함께 증자에 참여해 사천 현대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새로운 합자사인 천능투는 사천성 에너지 인프라 건설 및 에너지 프로젝트 사

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천성 대표 국유기업이다. 배터리,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진출해 있어 사천현대와 최고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되고 있다.

현대차와 천능투는 양사가 보유한 강점을 바탕으로 상용차 연구개발, 생산, 판매는 물론 서비스, 물류, 신에너지차 등 전 부문에 걸쳐 다각적으로 협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천능투와의 합자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사천현대의 ▲상품 경쟁력 ▲생산 효율성 ▲판매 역량을 높이는데 전력을 기울여 중국 상용차 업계의 주목을 받는 상용차 메이커로 새롭게 성장시킨다는 전략이다.

현대차는 철저한 시장 및 상품 분석을 통해 중장기 상품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중국 현지의 자체 연구개발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 시장을 위한 매력적인 상용차를 연이어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 현대 브랜드 3개 차종, 치도 브랜드 3개 차종 등 총 6개의 라인업을 갖춘

사천현대 2022년까지 신차 및 후속차종 5개 차종을 개발, 중국 상용차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내년 트럭 전기차를 투입해 중국 신에너지 상용차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나가기로 했다.

또 주요 지역에 권역본부를 설치해 시장밀착형 판매관리 체제 구축 등 현지화 전략을 통해 동남아시아, 아중동 등 중국 외 지역으로의 수출도 추진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중국 사천성 대표 국유기업인 천능투와 글로벌 자동차 기업으로서 세계적 상용차 기술을 보유한 현대차 간의 이번 협력은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투자 및 기술 개발 노력을 통해 중국 상용차 시장의 선두권 업체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T맵 × 누구, 차 막힐 땐 음악듣기 추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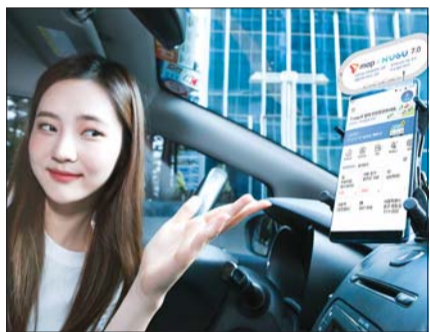
인공지능 강화한 7.0버전 선포

SK텔레콤은 'T맵×누구' 출시 후 1년 동안 축적한 약 5억 건의 음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능을 강화한 'T맵×누구' 7.0 버전을 4일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T맵×누구' 업그레이드는 ▲인공지능 인포테인먼트 강화 ▲목적지 관리 ▲주유 할인 추가 등 운전자의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의 생활 속 편리함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T맵×누구'는 주행 중 도로상황 및 운행정보를 반영해 차량이 정체되는 구간에서 정체 안내 메시지와 함께 '음악·라디오 듣기'를 추천하는 기능이 도입된다. SK텔레콤이 'T맵×누구'의 음원 서비스 이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 뮤직메이트·멜론 등 음원 서비스를 월 평균 630만회 이용했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순간은 '출발 시점'과 '정체 구간 진입 시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SK텔레콤은 T맵이 수집하는 교통 상황을 '누구(NUGU)'와 연동시켜 운전자 상황을 고려한 차량형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를 제안하는 방식이다.

SK텔레콤은 T맵×누구의 인공지능 기능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목적지 검색창 아래 '인공지능 비서' 메뉴를 추가했다. '인공지능 비서'는 추석 등 명절에는



모델이 SK텔레콤의 'T맵×누구' 7.0 버전을 소개하고 있다. /SK텔레콤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하거나, 실시간 교통정보를 조회해보라고 추천해준다.

또 이번 업그레이드는 목적지 메뉴에서 '자주 찾는 장소' 외에 '나만의 장소'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나만의 장소'는 최대 3곳까지 설정할 수 있고 앱 실행과 함께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한 예상 도착시각을 알 수 있다. '나만의 장소'는 집, 직장 등 자주 가는 목적지 외에 꼭 기억해야 하는 곳이나 주기적으로 찾는 장소를 검색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된 기능이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T맵×누구' 고객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T맵 애플리케이션(앱)에 본인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리터 당 최대 70원까지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T맵 주유할인' 서비스도 이달 중 선보일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우체국서도 펀드 판다... "메기 역할 할 것"

전국 222개 우체국서 판매 시작
원금손실 위험도 낮은 MMF 등
안정적·낮은 보수의 13개 상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3일부터 우체국 펀드판매 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이 대상이고, 전국 222개 총괄우체국에서 펀드 판매가 시작된다.

판매상품은 공모펀드 중 원금손실 위험도가 낮은 머니마켓펀드(MMF), 채권형펀드와 주식비중이 30% 이하인 채권혼합형펀드 상품 중 안정적이고 보수가 낮은 13개 상품이다.

강점은 백령도 등 도서지역뿐만 아니라 해남 땅골 마을까지 이어진 전국적 네트워크다. 우본 측은 "농·어촌 등 금융소외지역 구석구석까지 넓은 투자 접점을 제공함과 동시에 누구나 편리하게 펀드 거래를 해 서민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펀드 수수료 인하 등 펀드판매 시장의 혁신을 선도하는 메기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우본은 6단계 표준판매 프로세스와 펀드 투자광고의 사전 승인, 금융투자협회 심사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원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펀드 판매 개시 기념 오픈 행사에서 우체국 금융모델 배우 황정민이 인공지능 로봇에게서 투자성향분석을 받고 이를 강성주 본부장(왼쪽)이 설명해 주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차단할 예정이다. 또 전국 총괄우체국과 지방우정청에 내부통제담당자를 지정해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고 펀드 준법지원시스템 신설과 사고예방 시스템을 개선하여 금융사고도 예방한다.

이날 우본은 펀드판매 개시를 축하하기 위해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우체국 금융모델 황정민과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펀드의 운용사 대표들을 초대해 기념행사도 열었다. 신규 가입자 대상으로는 추첨을 통해 우체국쇼핑 상품 등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펀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이벤

트는 전국 우체국, 우체국금융 고객센터와 우체국금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성주 본부장은 "운송배달서비스, 우체국 금융 수수료 면제에 이어 우체국이 펀드까지 판매해 국영금융으로서 서민 금융 실현과 착한 금융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우체국에서 펀드에 가입하고 민간 수준 이상의 고객보호 의무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내부통제 확립과 불완전판매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제주항공, 17일부터 국내선 화물사업 진출

제주항공이 국제선에 이은 국내선 화물사업에 진출한다.

제주항공은 17일부터 제주~김포 노선을 시작으로 국내선 화물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 2012년부터 국제선에서 화물운송사업을 시작했지만 국내선에서는 각 공항별 화물터미널 등의 확보가 어려워 치열한 국내선 화물사업에 미뤄왔다.

제주항공은 최근 화물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완료했으며 제주공항과 김포공항에서 화물조업을 위한 계약도 마무리했다.

국내선 화물사업의 첫 노선이 될 제주~김포 노선에서 하루 최대수송량은 약 15톤을 예상하고 있으며 항공화물 운임은 기존항공사의 80% 안팎에서 결정될 예



정이다. 제주항공은 제주~김포 노선의 화물사업이 안정화되면 제주~부산과 제주~광주 등으로 노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상생 협력 차원에서 국내선 화물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도권과 제주에서 생산되는 신선 농산물 등의 상호 항공운송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964@

최정우 "한발 앞선 투자·인재 확보 필요"

(포스코 회장)

>> 1면 '포스코, 5년간 45조...'서 계속

우선 철강 사업은 광양제철소 3고로 스마트화, 기가 스틸 전용 생산설비 증설, 제철소 에너지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부생가스 발전설비 신설 등에 2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차전지 소재 부문의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본격 양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미래 신성장 사업 투자는 리튬 추출 기술 효율화 및 공장 신설, 국내외 양극재 공장 건설 등에 총 10조원이 들어간다.

에너지 인프라 사업의 경우 청정화력 발전 건설과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 추진, 미안마 가스전 시설확장 등에 9조원이 투자된다. 이와 함께 포스코는 철강 신기술 개발과 생산현장 경쟁력 확보,

신성장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우수 인재를 조기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2만명을 신규 고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채용되는 인력은 모두 정규직이며, 부문별로는 ▲철강 1만명 ▲소재-에너지 5000명 ▲인프라 5000명 등이다. 채용 인원은 투자 진행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이번 대규모 투자·고용 계획에 대해 최정우 회장은 "글로벌 철강 산업을 이끌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한발 앞선 투자와 인재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은 취임을 전후로 경영 방향에 대한 외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이른바 '포스코 러브레터'를 제안하고 그룹 전 임원이 참여한 '개혁 아이디어 제

안'을 주문하는 등 사내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동안 '포스코 러브레터'를 통해 사내 임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주주, 고객사, 공급사 등 이해관계자와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약 3000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는 선진화된 지배구조와 협력사와의 수평적 관계, 인재 육성, 세대간 협력적 분위기 강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비즈니스, 지역사회, 조직문화 등 3개 영역으로 분류해 ▲각 사업부문 경쟁력 강화와 신사업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현장 중심의 창의적 일하는 방식 등으로 개혁 방향을 정하고 과제를 수립하고 있으며, 취임 100일 시점인 11월 초에 개혁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강력히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